

# 태안 원유유출 피해규모 3만5000ha

## 국토부, IOPC 총회 보고서 제출 선지급 요청 ... 충남·전남 4만가구

한국 정부는 태안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4만가구에 3만5000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모나코에서 개막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총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고 IOPC에 보상금 선지급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보고서에서 피해 액수는 다양한 변수 때문에 정확한 집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IOPC가 최대한도로 보상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해안 300여km가 오염됐으며 101개 섬과 15개 해수욕장, 3만5000여ha에 이르는 양식장과 관련시설, 그리고 4만여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과 전남 중 충남에서는 총 3만여가구가 피해를 겪었고, 지역별로는 태안이 1만 1688가구, 서천이 7720가구, 보령이 4924가구, 서산이 3331가구, 당진이 1666가구, 홍성이 671가구였다.

피해 면적은 충남이 총 1만5287ha로 서천이 4539ha, 태안이 488ha, 보령이 2484ha, 서산이 1628ha, 홍성이 830ha, 당진이 1ha 순이었다.

전남의 피해가구는 총 8400가구로 신안이 3672가구, 영광이 3158가구, 무안이 1570가구이며 총 피해면적은 1만9017ha로 신안이 1만7008ha, 무안이 1175ha, 영광이 834ha였다.

이밖에 군산 등 기타 지역에서 1600여가구, 700ha 이상이 원유 유출로 피해를 봤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IOPC 집행위원회에 원유유출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IOPC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사고의 피해규모를 3520억원에서 4240억원으로 추정하고 최대한도인 3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양측이 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07년 12월7일부터 3월11일까지 복구작업을 위해 총 134만명, 선박 1만5757대, 헬리콥터 274대, 중장비 1198대, 세척장비 1113대, 트랙터 4646대를 동원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IOPC에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회에서 정부는 정확한 피해액수를 밝히기보다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IOPC가 보상액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IOPC가 자체 조사한 피해액도 최대 보상한도인 30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1>